

## 【P3-36】

초피(*Zanthoxylum piperitum*) 뿌리, 줄기 및 잎의 항염증 및 항혈전 작용 관찰홍정희\*, 장미진, 안정모, 최정화<sup>1</sup>, 박모리<sup>2</sup>, 이순재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, 진주국제대학교 식품과학부<sup>1</sup>, 국립상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<sup>2</sup>

초피는 운향과(*Rutaceae*)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옛부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향신료, 제유용 및 다양한 질환에 대한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. 본 연구에서는 초피 뿌리, 줄기 및 잎 등의 부위별 및 추출물 분획별로 *in vitro*에서의 항염증 작용 및 항혈전 작용을 관찰하고자 하였다. 초피의 잎, 줄기 및 뿌리를 각각 methanol층, methylen chloride층, ethyl acetate층, n-butanol층, 수층 및 수층침전 등의 분획별로 얻었다. 항염증 작용을 관찰하기 위하여 초피 부위별 추출물간의 soybean lipoxygenase (SLO) 활성을 관찰한 결과 뿌리에서는 methylen chloride층  $\geq$  ethyl acetate층의 순으로 활성이 높았으며, 줄기는 ethyl acetate층에서 활성이 높았다. 잎의 경우에는 추출물이 대부분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. 부위별 활성을 비교한 결과 잎 > 줄기 > 뿌리의 순으로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. 항혈전 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activated aptrial thromboplastin time (aPTT)를 초피 부위별 추출물 분획별로 관찰한 결과 뿌리, 줄기 및 잎 모두에서 n-butanol층에서 저해 활성이 높았다. 부위별 활성은 잎 > 줄기 > 뿌리의 순으로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. 결론적으로 분획별 추출물 비교에서 ethyl acetate층에서 항염증작용과 n-butanol층에서 항혈전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, 특히 부위별 비교에서는 초피 잎의 활성이 가장 좋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.